믿지 않는 이웃에게 (친구인 경우)

안녕,

나 ##이야!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너에게 한번쯤은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ㅎㅎ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벌써 # 년이나 흐른거 알아? 처음 만났을 때 \_\_\_- 이랬었는데 이렇게 오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가장 좋은게 있는데 너한테도 나누고 싶었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읽어주길 바래 😊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들이 많이 바뀌고,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감사한 것들이 삶에 참 많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과 주변에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처음 걸음마를 배워 걷고 말을 하고 웃고 울고하는 모든 순간들이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거겠지 라고 감사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처음 만들고 세상에 보내신 분은 어떠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 분이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와 나를 만드셨고 심히 기뻐하면서 기대를 품으시며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답고 넓은 하늘과, 깊고 푸른 바다, 빛나는 자연을 창조하신거야. 지금껏 우리의 삶이 그래왔듯, 행복하고 기쁜날도 있지만 아프고 외롭고 눈물짓는 날들도 많았을텐데… 괜스레 잘 이겨내왔고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네. 오늘까지 잘 지내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있잖아, 그거 알아? 그 모든 순간 마다 돌보시며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더 아파하신 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야.

난 너를 보며 참 많이 배워. 너의 \_\_\_\_\_\_ 부분도 참 좋고,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친구지만 대대견하 자랑스러운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안에는 완전한 행복은 스스로 생길 수 없고, 모두에게는 늘 외로운 구석은 있데. 그래서 나는 너가 너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유일하게 완벽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서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완전한 사랑받는 기쁨을 남은 삶 가운데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장담해. 이런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너를 만들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왔어.

\_\_\_\_아, 조금 생소하고/너무 멀게 느껴질 수 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쯤 너를 만드시고 지금껏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우리 레벨 내려가면 다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하자! 그동안 아프지말고 건강하게 지내 😊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해!

- ###가-

(어른일 때)

\_\_\_ 안녕하세요, ##이에요! 계속 되는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건강히 잘 지내시죠?

이제 뉴질랜드는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한달 넘게 지속되는 락다운으로 벌써 봄이 찾아왔네요. 꽁꽁 싸매고 겨울옷 입고 입김 내던 계절이 언제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된건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가벼워진 옷차림과 따듯한 날씨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

다름 아니라 날씨도 바뀌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 생각들도 하게 되고 \_\_\_\_가 보고싶고 생각나서 조금 부끄럽지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길어진 턱에 길진 않았어도 지난 삶들 돌아보게 되고 감사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카페에서 사마시던 것도, 동료들과 웃으면서 회사에서 인사하던 것도, 저녁에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꼐 시간을 보내던 것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인데 당연한게 없고, 영원한것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ㅎㅎ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 가운데 저에게 너무 귀한 것이 있어서 나누고 \_\_\_\_께도 나누고 싶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저를 생각하셔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저는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짐 나눠주는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고 아파할 때 더 마음 깊이 위로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_\_\_를 보며 늘 많이 배우고 감사한거 아세요?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시고 터질듯이 사랑주시는 모습에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요. 그리고 저도 이런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온전하게 의롭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데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을 주실수 있고,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마음에 언제나 외로운 공간이 있데요.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나만 아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곳이라 그렇데요. 저는 \_\_\_를 충분히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하나님을 \_\_\_도 아셔서 남은 삶 더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저도 보답하고 싶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 기회에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믿고 너무 많이 채워져서 \_\_\_도 제가 알고 기쁜 이 마음을 같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기도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올림

가족/친척에게

(형제자매/부모님일 떄)

언니/오빠/동생/누나/형에게

하이… 안녕… 무슨 편진가 싶지…? 오랜만에 쓰는거라 아마 \_\_\_가 느끼는 이상으로 나도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긴하네ㅋㅋ 나 불치병 걸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고 끝까지 읽어줬음 좋겠어.

다름 아니라 코로나 펜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 생각들 하게 되서 예전부터 전하고 싶던 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만난게 20년이 넘는 징글징글한 이 세월도 돌아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른거같아. 우리가 20/30대를 넘어가는 시간이 된게 말이되? 싸우다 엄마/아빠 한테 혼나서 손들고 벌스고 억지로 화해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싸우는게 귀찮을 만큼 커버린건지 모르겠어ㅋㅋ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가끔 내 혈육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기도 했지만 \_\_\_\_가 있었어서 많이 웃고 즐거웠던건 맞는거같아. 그래도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든든도 하고 장난도 더 치게 되고 그런거 같아.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껏 건강하게 서로 열심히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좀 나누려고 해. 고맙지~? 나한테 가장 귀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내가 \_\_\_\_가 \_\_\_\_\_했을 때 되게 나도 기쁘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 하고 돌아보니 엄마아빠가 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을 것 같더라. 그리고 \_\_\_\_\_\_\_가 \_\_\_\_\_\_\_\_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정말 속상했고 엄마아빠도 그래보이셨어. 하지만 나는 \_\_\_\_ 위해서 기도했던게 \_\_\_- 보다 더 이 상황을 잘 알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꼐서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했고, \_\_\_\_가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언제나 함께 하셔.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기 까지 했거든.

한번씩 그런 생각을해. 가족인 우리도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_\_\_도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나랑 같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래.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_\_\_편이라는거 잊지마,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데.

언제든 하나님 대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교회도 같이가자~ ㅎㅎ

레벨 내려가면 얼른 가서 맛난거도 먹고 마스크 빼고 산책이나 가자~ 조금만더 힘내자! 홧팅!

- ###가 -